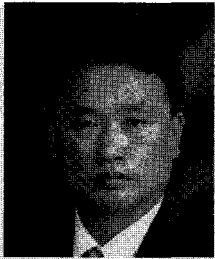


# 기술력, 경쟁력 갖춘 제품 통해 업계 선도

## 생산라인 구축으로 해외시장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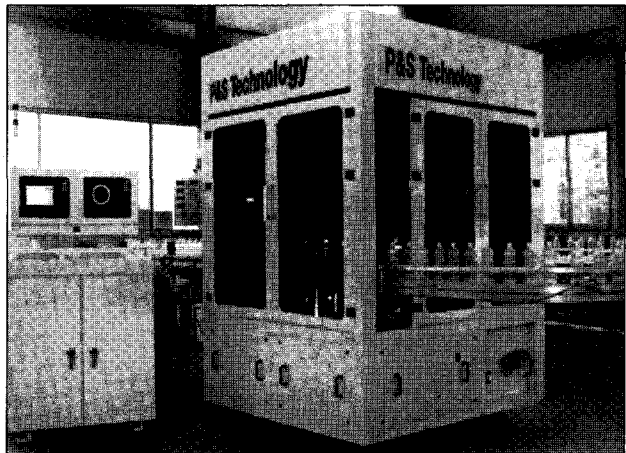
**박 원 재**  
피엔에스테크놀러지(주) 대표이사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소비성향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품질의 고급화를 피하여야만 한다.

특히 식품산업에서 품질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우리 포장업계의 역할은 날이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

97년 성원시스템으로 출발, PET병 Sidewall 이물질검사장비 국산개발을 완료하면서 포장용기 검사기 제조업체로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피엔에스테크놀러지(주)(대표이사 박원재)는 직원들의 남다른 열정과 꾸준한 독자 개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경기도 광주 중대동에 위치한 피엔에스는 PET Bottle, Glass Bottle, Preform, Full Bottle, Can Seam 등의 내용물 검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 식음료·



▲ 피엔에스테크놀러지(주)의 PET병 이물질 검사기인 PS-21RP



▲ 경기도 광주 증대동에 위치한 피엔에스테크놀로지(주)

계약·주류업체에 수입품의 절반 가격 수준으로 장비를 공급하며 해외 유명 업체에 의존했던 국내 포장용기 이물질 검사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피엔에스의 장비는 현재 효성과 롯데알미늄, 삼광유리, 안성유리,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 해태음료 등 국내 주요 용기·식음료 업체에 납품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피엔에스의 주요 장비로는 Multi Scan PS-21RP, PS-21RL Leak 검사기, PS-21RG, PS-21TSS, PS-21RWP 등이 있다. 자세한 제품 설명을 하자면 Multi Scan PS-21RP는 PET병을

대상으로 Mouth Top Crack, Oval, Neck Inside, Neck outside의 이물, Sidewall 이물, Bottom 이물의 불량을 로터리 타입의 wheel을 채용하여 검사 구간 내에서 병을 360° 회전시키면서 병의 전체를 완벽하게 검사하는 고속 검사 장비이다. PS-21RL Leak 검사기는 로터리 타입의 Wheel을 이용하여 검사 구간 내에서 PET병 성형 시 발생하는 Pinhole과 Mouth top, sidewall, bottom의 이물질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멀티형 검사 장비이다.

Multi Scan PS-21RG는 로터리 타입으로 회전하면서

유리병 입구부위의 파손과 흠을 검출하고 Sidewall의 이물질 및 crack 등 결함과 병의 밑바닥내의 이물질과 더러움 등을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첨단 영상처리 검사장비인 빈병 검사기이다.

PS-21RWP는 PET Bottle 반제품인 프리폼(Preform) 생산시 발생하는 이물, 미성형, 찍힘 등으로 인한 불량을 로터리 타입의 4wheel을 채용하여 검사 구간마다 불량 Preform 전체를 완벽하게 검사하는 고속 검사 장비이다. 마지막으로 Multi Scan PS-21TSS는 플라스틱 사출기에서 만들어진 프리폼을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병

# P&S

구 표면(TSS) 및 Oval 병구형상)을 정확히 검사하는 장비이다.

피엔에스의 제품은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의 기린테크노社 장비와 비교해 손색이 없을 뿐 아니라 가격적인 면에서도 저렴해 국내 유명업체들이 해외 유명 회사 제품을 일부러 바꿔가며 사용

할 만큼 품질이 탁월하다.

기술력, 경쟁력 이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데 성공한 피엔에스는 국내산업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의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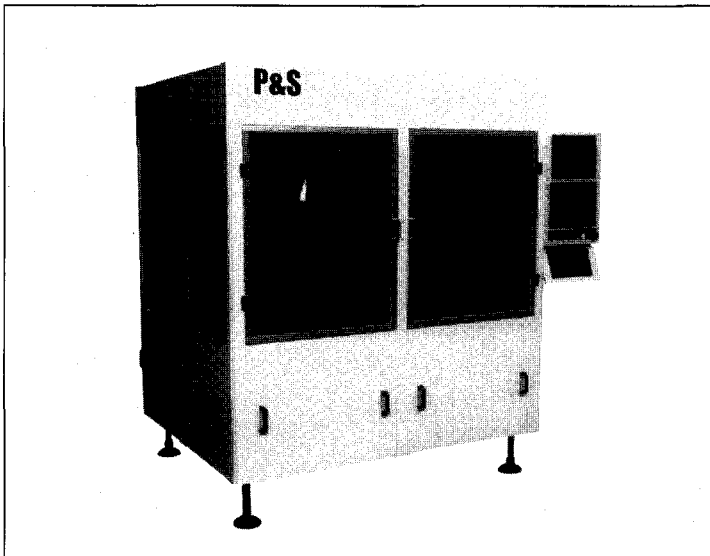
마침 기자가 방문한 날에 중국에 첫 수출 계약에 성공한 피엔에스는 본격적으로 해

외수출의 시발탄을 발사하게 됐다.

“사실 품질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중국이 다가오는 2008년 올림픽 및 주요 행사로 인해 그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식품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용기검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일본,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 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우리 회사 제품이 기술력과 경쟁력에서 크게 어필해 수출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현재 거대한 중국시장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어려움을 맞고 있는 포장산업에서 이와 같은 성과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연구를 위한 개발이 아닌 현장에서 필요한 제품을 위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피엔에스 직원들은 벤처회사의 장점을 십분 살려 일사천리로 작



▲ 피엔에스테크놀로지(주)의 Flexible 로터리 타입기계인 PS-21RPW



▲ 피엔에스테크놀로지(주)의 공장내부

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휴, 공휴일이 따로 없는 피엔에스 직원들의 고집스러운 일에 대한 열정은 박원재 사장도 놀라워 할 정도로 대단하며 그 파워는 실로 강하다.


직원들의 꾸준한 연구와 개발로 피엔에스는 단기간에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으며 도약할 수 있었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준 박원재 사장의 경영도 직원들의 사기를 드높이는데 큰 몫을 했다.

나의 회사가 아닌 우리의 회사임을 강조하는 박원재 사장은 벤처회사에서만 볼 수 있는 임직원들 간의 '격' 없는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며 제품 개발을 위한 대화와 단합을 주도하고 있다.

자신 역시 힘든 시절을 겪으며 회사를 창립한 만큼 항상 어려운 이웃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는 박 사장은 30년 된 해외 타 경쟁 업체와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고품질 저가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엔에스는 해외 전시회 등을 통해 사업을 펼치며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공장을 건립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여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제반을 마련, 세계속의 기업으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생각나게 하는 피엔에스. 작지만 큰 기업인 피엔에스테크놀로지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며 세계 속에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한얼 기자